

# 한국어 및 영어의 제외구문의 의미분석: 자유제외구문을 중심으로

윤재학\*†  
경희대학교

**Jae-Hak Yoon. 2002. A Semantics of Exceptive Constructions in Korean and English.** *Language and Information 6.1*, 1-20. This paper examines existing approaches to exceptive constructions, which typically serve to maintain the use of universal quantifiers by diminishing the domain quantified over. It places a particular focus on constructions involving Korean *oyey*, Dutch *behalve*, and English *apart from*, *other than*, and *aside from*. These lexical items all share an interesting semantic property that they mean either 'except' or 'besides' depending upon their linguistic contexts, but they have largely been ignored in the literature of exceptive constructions. An observation is made that the two meanings of the ambiguous exceptive words are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with respect to types of quantifiers and that they are not an isolated fact. Based on this, a unifying formal semantic analysis is attempted for the constructions.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exceptive construction, connected exceptive, free exceptive, 제외구문, 자유제외구문, 연결제외구문

## 1. 머리말

일반성(generality)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인간이 지니는 인식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듯하다. 언어환경에서 부득이 일반성을 유지하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에 나열한 몇 가지 장치를 이용하여 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

- 화용적 제한으로 일반성을 유지시키는 방법
  - 문맥에 따라서 제외시키는 경우
    - (i) Nobody is as tall as Henrietta.
    - (ii) I can see everybody quite well from here.
  - 범위제한(domain restriction)의 경우
    - (iii) Now everybody is here.

---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경희대학교 영어학과, E-mail : jyoony@khu.ac.kr  
† 이 연구는 1999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본 논문의 완성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 통사/의미적으로 제한으로 일반성을 유지시키는 방법

(iv) Every student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그러나 언어 생활에서 엄격한 진위를 따진다면 위의 (i)은 논리적 모순이다. 적어도 Henrietta는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문장 (ii)에서도 주어 자신은 제외한다는 것을 문맥에서 파악하여 진리조건에 감안하며, 문장 (iii)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용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중 전체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에 반해, 문장 (iv)는 *except John*의 의미에 의해 명시적으로 일부의 개체를 제외시킨 후 나머지 개체에 관해 일반화하는 구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평범한 상황에서는 세상의 모든 학생 중에 John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의 학생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화용적 범위제한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는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화용적으로 제외하여 일반화하는 문장과는 구별이 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일정 개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구문에 관한 것이다.

제외구문(Exceptive Constructions)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서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xcept/except for* 또는 *but*에 의해 도입되는 영어의 제외구문은 의미적으로 부정조건, 포함조건, 그리고 양화사 제한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짐으로써 이에 대한 논리적 의미관계를 포착하는 것이 상당한 도전으로 여겨져 왔으나, Hoeksema(1987, 1990, 1995), von Stechow(1993), Moltmann(1995) 등의 연구에서 이 구문에 대한 적절한 의미적 설명이 상당 부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문의 분석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또한, 필자가 관찰하는 바, 이들에 해당하는 한국어 '-외에' 구문은 아래 (1), (2)와 같이 영어의 입장에서 볼 때 'except'와 'besides'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 (1) 철수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  
'Every student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 (2) 철수 외에 세 학생이 참석했다.  
'Three students besides John attended the meeting.'

필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보여 주는 한국어 구문이 어떤 근거에서 두 가지가 의미적으로 관련되는가를 보이고,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자연스러운 언어현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예와 유사한 언어자료들을 제시하여 현재까지의 제외구문의 논의들을 다소나마 발전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한국어와 영어에서 서로 상당한 부분이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더불어 상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차이점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를 보여 주려는 이론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한국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반적인 실수를 선별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올바른 영어 사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 2. 제외구문의 특징

일차적으로 영어 제외구문의 두 가지 부류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이 고찰은 *except*, *except for*, *but*으로 인도되는 구문에 국한하고 이들이 보여 주는 주요한 세 가지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아래 (3), (4)의 두 유형의 제외구문은 몇 가지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서 구별이 된다. 우선 (3)의 *except John*이 (4)의 *except for John*에 비해 통사적으로 이동의 제한이 많기 때문에 Hoeksema(1987)를 따라, 각각 연결제외구문(*connected exceptives*), 자유제외구문(*free exceptives*)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3) Every student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4) a. Except for John,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b.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except for John.

먼저, 본 논문에서 자주 지칭하게 될 구조에 대한 용어상의 정의를 내리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위 (3)의 예문에서 *every student except John*과 같은 전체 명사구를 ‘제외명사구’라고 부르고, *except John*은 ‘제외구절’, 제외명사구에서 제외구절을 뺀 나머지, 즉 *every student*는 ‘피제외구절’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2.1 연결제외구문(*Connected Exceptives*)

첫 번째 의미특성으로서, 연결제외구문에는 부정조건(*negative condition*)이 존재한다. 제외구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로 등장하는 명사구에 해당하는 개체의 서술관계를 피제외구절의 개체들과 비교하면 반대의 조건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위의 문장에서, John이 (5a)에서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며, (5b)에서는 John이 참석했어야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a. Every boy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b. No boy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이 부정조건이 함의의 조건이 아니라 혹시 대화 함축(*Gricean conversational implicature*)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즉, (5a)에서 *except John*이란 표현이 부정을 의미한다기보다 제외만을 규정하는 것인데 대화의 원리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부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이것은 아래 (6)의 테스트를 통해 반박이 된다: 아래의 연결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 부정조건을 대화 함축으로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6) Well, everybody except Dr. Samuels has an alibi, inspector. ??Let's go see Dr. Samuels to find out if he's got one too.

둘째로, 연결제외구문에는 포함조건(*condition of inclusion*)이 존재한다. 즉, 위의 (5)의 문장에서 John은 소년(*boy*)이라는 집합의 원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John* 대신에 일반적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쓰이는 *Mary*를 쓸 경우 아래 ‘#’표시로 나타낸 바와 같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 (7) a. #Every boy except Mary attended the meeting.  
 b. #No boy except Mary attended the meet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제외구절에는 양화사 제한(quantifier constraint)이 있어서 전칭 양화사의 일종만이 이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 (8)의 문장에서 *every boy*, *all boys*, *no boy*만이 적절하며, *most boys*, *a lot of boys*, *three boys*, *at least three boys*, *few boys* 등은 피제외구절에 등장할 수 없다.

- (8) a. Every boy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b. All boys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c. No boy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d. #Most boys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e. #A lot of boys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f. #Three boys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g. #At least three boys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h. #Few boys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 2.2 자유제외구문(Free Exceptives)

위에서 자유제외구문으로 분류한 (아래 재나열한) (4)는 이미 언급한 통사적 차이 뿐만 아니라 의미적 특성에서도 연결제외구문과 구별된다.

- (4) a. Except for John,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b.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except for John.

우선 부정조건이 주어진 문장의 함의관계라기보다는 대화함축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하면 연결제외구문의 경우인 위의 (6)과 달리 다음 문장 (9)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 (9) Well, except for Dr. Samuels, everybody has an alibi, inspector. Let's go see Dr. Samuels to find out if he's got one too.

또한 자유제외구문에서는 양화사 제한이 비교적 느슨한 경향을 보여준다. 다음 자유제외구문 (10)에 나타나는 *most*, *few*, *the* 등은 연결제외구문에는 허용되지 않는 양화사들이다.

- (10) a. Except for Joan, most cabinet members liked the proposal.  
 b. Except for John, few employees accepted the pay cut.  
 c. The boys came except for John.  
 d. I've cleaned the house except for the bathroom.  
 e. The house was quiet except for the noise of Louise typing.

**3. 기존의 의미연구**

아래에 제외구문에 대한 주요한 세 가지 의미론적 접근인 Hoeksema(1987), von Stechow(1993), Moltmann(1995)을 소개하고,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자유제외구문과 관련된 의미론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3.1 Hoeksema (1987)**

Hoeksema는 연결제외구문과 자유제외구문의 통사, 의미적 차이를 중시하여 이들을 구분하여 의미를 포착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리조건에 있어서 이들의 의미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자유제외구문의 진리조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양화사제한을 위한 부가성 조건(additivity condition)은 논의의 편이를 고려하여 생략한다.

$$(11) \quad |\text{Except for } C, S|^E \text{ is true iff } |S|^{E-C} \text{ is true.}$$

이에 따라 (아래에 다시 제시한) 예문 (4a)의 진리조건은, 모델의 개체영역 중에서 John이 지칭하는 대상을 제외한 개체들에 대한 문장 (12)의 진리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진리조건이 문장 (4a)의 진리조건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4a) Except for John,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12)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그러나, 이 방식에 따르면 제외구문은 모델의 개체영역 전체 E에서 제외구절에 해당하는 개체인 C를 제외시키는 전반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제외 명사절의 해석뿐만 아니라 나머지 전체 문장의 의미계산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서 Hoeksema 자신도 이러한 단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위의 진리조건에 따르면, 아래 문장 (13a)의 진리치는 John을 제외한 개체들을 대상으로 (13b)를 계산할 경우와 진리치가 같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John's father의 의미값 계산이 정의되지 못하는 오류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13) a. John's father hates everybody except for John.  
 b. John's father hates everybody.

(14) a. Except for Jeff, nobody trusted everybody.  
 b. Nobody but Jeff trusted everybody but Jeff.  
 c. Nobody but Jeff trusted everybody.

이는 다시 말하면, John's father의 의미값 계산을 위해서는 John의 의미를 계산해 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John의 의미계산은 John에 해당하는 개체가 모델에서 삭제된 상태이므로 정의가 되지 않게 되는 모순에 봉착하고 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장 (14a)의 의미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 Hoeksema의 이론에 따르면, (14a)의 의미는 (14b)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의미는 (14b)가 아닌 (14c)의 의미이다. 따라서 전체 모델에서 개체를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없다.

### 3.2 Von Fintel (1993)

Hoeksema와 마찬가지로 von Fintel도 연결제외구문과 자유제외구문을 구분하여 의미를 포착하였다. Von Fintel의 장점은 우선 위에서 지적된 전체 모델에서 개체를 삭제하는 것에서 발생한 단점을 보완하였다는 것이다. 이 분석은 전체 모델에서 제외구절에 해당하는 개체를 삭제하는 Hoeksema 방식의 진리조건 대신 양화사의 범위를 축소시켜 예외적인 집합을 전체에서 제외시켜 양화사의 논항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주어진 진리조건으로 제외구문의 세 가지 의미특성에 대한 것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도록 통합시켰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다. 예문 (3)과 (4)의 연결제외구문과 자유제외구문의 진리조건은 (15)로 정의된다.

- (3) Every student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 (4) a. Except for John,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b.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except for John.
- (15) every: D, student: A, C: John, P: attended the meeting
- a.  $D \ A \ \text{except} \ C \ P$  is true iff  
 $P \in D(A - C) \ \& \ \forall S (P \in D(A - S) \rightarrow C \subseteq S)$  is true
- b. except for C,  $D \ A \ P$  is true iff  
 $P \in D(A - C) \ \& \ P \notin D(A)$  is true

여기에 제시된 (15a)의 진리조건의 첫째 조건  $P \in D(A - C)$ 에 따르면 전체 학생들의 집합 A에서 예외적인 집합 C를, 즉 John이 가리키는 대상, 제외하고 이에 대해 전칭 양화사 *every*에 적용시켜 술어동사 *attended the meeting*이 지칭하는 집합이 집합들의 집합인  $D(A - C)$ 의 원소이면 참이 되는 것이다.

둘째 조건  $\forall S (P \in D(A - S) \rightarrow C \subseteq S)$ 는 von Fintel이 유일성 조건(unicqueness condition)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C는  $D(A - C)$  P가 참인 (마찬가지로  $P \in D(A - C)$ 가 참인) 가장 작은 집합이라는 것이다. 이 조건을 (3)의 예에 적용하면, John이 유일한 원소인 집합이 예외집합으로서 가장 최소집합이라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이러한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양화사로서 *every*, *all*, *no* 등의 긍정 및 부정 전칭양화사로만 국한 된다는 양화사 제한조건과,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C는 P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다는 부정조건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제외구문에 대한 진리조건은 (15b)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첫째 진리조건은 연결제외구문의 경우와 동일하나 둘째 조건은 유일성 조건을 부정조건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는 양화사 제한이 자유제외구문에는 완화되어 *most*와 *few*와 같은 비전칭양화사도 허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Von Fintel은 Hoeksema(1987)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주어진 자료에 입각한 통사, 의미적 고려를 충실히 반영한 합성적(compositional) 설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아래의 자유제외구문의 의미분석에서 von Fintel을 기본틀로서 삼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과 함께 두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을 언급 하고자 한다. 먼저, Moltmann(1995: 228)이 지적한 대로 von Fintel은 자유제외구문의 양

화사 조건을 ‘완화’(“looser restrictions”)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제시한 진리조건에는 이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제로는 ‘폐기’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아래 문장 (16)의 부적절성을 설명할 수 없다.

(16) # Ten boys/More than half of the boys came except for Bill.

물론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지, 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아래에 이런 경우에 대한 화용론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로, 아래 4.2에 제시될 영어 및 한국어의 일반적인 자유제외구문의 자료를 고찰할 때, 자유제외구문을 대표하는 제외구절로서 Hoeksema가 *except for*를 상징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on Fintel이 이 점에서 Hoeksema를 답습한 것은 *apart from*, *aside from*, *other than* 그리고 한국어의 *외에* 등의 일반적인 자유제외구문과는 상이한 특징을 가진 구문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의미있는 일반성을 포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3.3 Moltmann (1995)

Moltmann(1995)은 이전의 논의에서 보다 더 폭 넓은 제외구문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von Fintel과 대비된다. 첫째, Moltmann은 연결제외구문과 자유제외구문의 통사적 차이점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의미적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Hoeksema와 von Fintel이 발견한 두 구문간의 의미, 화용적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무시하고 이 둘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론을 제시한다.

둘째, 형식적으로 von Fintel의 분석에서는 제외구절이 피제외구절 내의 명사에 대해서 작용하는 기능을 하지만, Moltmann의 분석에서는 제외구절이 피제외구절을 논항으로 취하여 일반양화사를 도출해 낸다. 예를 들어 *except for John*, *every student*나 *no student except John*의 경우에 그의 이론에 따르면 *except for John*과 *except John*이 명사 *student*가 지칭하는 집합에 대해서 제한을 직접 가하는 방식 대신, *every student*와 *no student* 전체를 논항으로 취한다. 그의 기본 형태의 의미분석은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p. 244).

(17)  $(\{ \text{except}(\text{for}) \}(|NP_2|))(|NP_1|)$

- a.  $= \{V \setminus |NP_2| \mid V \in |NP_1|\}$ , for all  $V \in |NP_1|, |NP_2| \subseteq V$ .
- b.  $= \{V \cup |NP_2| \mid V \in |NP_1|\}$ , for all  $V \in |NP_1|, |NP_2| \cap V = \phi$ .
- c. undefined otherwise.

우리가 (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다. 먼저, 이 구문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피제외 구절의 양화사는 반드시 전칭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조건은 의미조건에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담화함축에 의존한 설명을 예상하게 된다.

이러한 Moltmann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부정조건을 대화함축의 결과로 남겨 두면서, 동시에 von Fintel의 테스트에 의해 보여준 연결제외구문과 자유제외구문 간에 분명히 나타나는 함축의 파기 가능성의 차이점을 무시하였다. 그럼으로써, 부정조건이 절대적인 진리조건

의 일부로 파악되는 연결제외구문의 경우 설명할 방법이 없다.<sup>1</sup> 또한, 두 가지 제외구문을 의미적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 자유제외구문과 영어의 *except for* 외에 다른 일반적인 자유제외구문이 가지는 중의성의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설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von Fintel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 4. 자유제외구문의 재고찰

앞 절에서 자유제외구문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고찰하면서, 이들의 분석에서는 기본 자료를 영어의 *except for*에 국한시킴으로써,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 어떤 점에서 영어의 *except for*가 불규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제외구문을 대표할 수 없는지 보여 주겠다.

##### 4.1 한국어 제외구문

다음 (18)은 한국 학생들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오류문장의 한 부류이다.

- (18) \*Three students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의도한 의미) 'Three other students besides John attended the meeting.'

이러한 오류가 고립적이고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한국인 학생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모국어인 한국어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영향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서두에서 언급한 (아래 다시 나열한) 문장 (1), (2)의 경우 영어에서는 다른 어휘인 *except*와 *besides*를 쓰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외에*로 통합되어 이를 영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여 *except*로 통합한 결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1) 철수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  
'Every student except John attended the meeting.'
- (2) 철수 외에 세 학생이 참석했다.  
'Three students besides John attended the meeting.'

먼저, 한국어 제외구문의 의미특성 중 부정조건은 영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부정조건이, 영어 연결제외구문과는 다르고, 자유제외구문과 마찬가지로, 함의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대화함축에서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19)의 테스트가 입증하는 것이다.<sup>2</sup>

1. 5절에서 제시되는 한국어의 연결제외구문 *밖에 안의* 경우에도 확연히 부정조건은 대화함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2.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의 문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못함이 관찰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필자에게 아직 불분명하다.

(i) 김형사, 용팔이 외에 아무도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군요. ??이제 용팔이가 목격했는지 알아 봅시다.

다만, 긍정문과 달리 부정문의 경우 제외되는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런 결과를 야기하지 않나 추측할 뿐이다.



- (19) 김형사, 용팔이 외에 모든 용의자가 알리바이가 있군요. 이제 용팔이한테 가서 알리바이가 있는지 알아 봅시다.

두 번째 조건인 포함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예를 분석하면, 먼저 포함 조건을 만족시키는 듯하다. 예를 들면 위의 문장 (1)에서 철수는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이 추론된다.

- (1) 철수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  
⇒ 철수는 학생이다.

그러나 (20)과 같은 문장을 보면, 항상 포함조건이 만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즉, 문장 (20)에서 철수는 반드시 여학생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 (20) 철수 외에 여학생 열 명이 참석했다.

양화사 제한에서도 영어의 두 가지 제외구문과의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분명히 다른 양상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영어 자유제외구문과 유사하게 한국어 양화사 중에서 아래의 문장 (21), (22)에서처럼 전칭이 아니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장 (2)에서 관찰되듯이 모두, 전부와 같은 전칭과 거의 대부분, 거의 아무도 등과 같은 준전칭 양화사 뿐만 아니라, 세, 열 명과 같은 수사(enumerals)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영어의 'except/but'의 의미는 사라지고, 'besides'의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 (21) 철수 외에 거의 대부분이 참석했다.  
(22) 철수 외에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다.  
(23) #철수 외에 절반 학생이 참석했다.  
(24) #철수 외에 절반 학생이 오지 않았다.  
(25) ??철수 외에 90% 학생이 참석했다.  
(26) 한 명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  
(27) #한 명 외에 열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28) 철수 외에 많은 학생이 참석했다.  
(29) 철수 외에 다섯 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어 제외구문과 관련하여 고찰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한국어 외예가 영어의 *except*와 *besides*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며,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언어적 환경에 따라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0) 외예에 관한 일반화:

- 외예의 두 가지 의미해석: 'except' vs. 'besides'
- 호환적인 양화사에 관련한 상보적 분포:
  - 'except'의 의미: all, no, most, almost all, almost no, few 등
  - 'besides'의 의미: three, ten, many, much 등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의미와 관련하여 상보적 분포를 나타내는 양화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볼 때, 'except'의 의미를 주는 양화사들은 주어진 집합 중의 비율에 관한 서술을 하는데 반하여, 'besides'의 의미를 도출하는 양화사들은 단순한 수량에 관한 서술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고찰된 한국어 외예의 두 가지 의미가 특수조사 는과 도를 부가함으로써 외예는과 외예도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 이들이 동음이의어로 분류될 수는 없다. 물론 원래 외예는과 외예도로 확실히 구분이 되던 것이 특수조사가 탈락되어 우연히 같은 모습을 띄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설명방법은 문제를 완전히 잘못 인식하는 것이다. 특수조사 는과 도는 각각 차이와 추가적 의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외예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 중 하나와 호환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이 추가됨으로써 추가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두 의미를 확실히 구분해 주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 외예에 기본적으로 는과 도에 해당하는 의미는 없다.

참고로, Milsark(1977), Barwise and Cooper(1981) 등과 같은 형식 의미론의 문헌에서 이 두 부류는 (*few, no* 같은 부정어를 제외하면) 강한 양화사(strong quantifiers)는 'except'의 의미와 호환성을 가지고, 약한 양화사(weak quantifiers)는 'besides'의 의미와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약한 양화사들은 존재구문인 *There* 문장의 다음과 같은 환경에 나타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31) There is/are .....news/students outside waiting for you.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러한 양화사의 강/약성이 어떤 점에서 관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이 차이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강/약성의 구분이라기보다는 비율에 관한 수량적인 제한을 가하는데 특칭성(definiteness)이 관련되기 때문에 강한 양화사와 일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추측이 된다.

## 4.2 자유제외구문의 실제

한국어 외예가 영어의 'except (for)'와 'besides'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은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우연하고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화란어의 *behalve*와 라틴어 *praeter*도 한국어 외예의 경우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Hoeksema 1995:145 참조). 또한 이러한 현상은 영어 어휘 내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서 아래 (32)의 예문처럼 영어 *apart from*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Swan 1995: 102).

- (32) a. Apart from the violin, he plays the piano and the flute.  
 (=Besides the violin, ...)  
 b. I like all musical instruments apart from the violin.  
 (= ... except the violin.)

이에 따라, 아래의 (33)-(35)와 같은 문장에서도 확인한 결과 위의 (32)의 현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33)과 같이 전칭양화사 *every*가 피제외구절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상 'except'의 의미, (34)와 같이 부정수사(indefinite numeral)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35)와 같이 부정의문사(indefinite wh-word)가 나타나는 의문문에는 항상 해당 전치사가 'besides'로 의미해석이 된다. 특히 (35d)의 경우는 이러한 예로서 *except for*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a. Other than Chris,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b. Apart from Chris,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c. Aside from Chris,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 (34) a. Other than Chris, five students attended the meeting.  
 b. Apart from Chris, five students attended the meeting.  
 c. Aside from Chris, five students attended the meeting.
- (35) a. Other than Chris, who is coming to the meeting?  
 b. Apart from Chris, who is coming to the meeting?  
 c. Aside from Chris, who is coming to the meeting?  
 d. Except for Chris, who is coming to the meeting?

따라서 화란어의 *behalve*, 라틴어 *praeter*, 한국어 외에, 그리고 영어의 *other than*, *apart from*, *aside from* 등이 전반적인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분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오히려 영어의 *except for*가 일부 구문에서 이들과 다른 행동양상을 보임으로써 약간은 불규칙적이고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어 *except for*를 자유제외구문을 대표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 4.3 자유제외구문의 의미포착

따라서 자유제외구문의 '중의성'의 경우가 고립된 경우가 아니라 여러 언어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언어현상에 대한 보다 충실한 기술이라 하겠다. 이를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실행상의 지침으로 삼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설명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von Fintel이 제시한 자유제외구문에 대한 진리조건 방식을 채택하고, 세 가지 의미특성 중에서 부정조건, 양화사 제한은 영어 *except for*의 경우와 다르므로 이를 완화하여 아래 (36)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36) a. Other than C, D A P is true iff  $|P| \in |D|(|A| - (|C|))$  is true

b. C 외에 D A P is true iff  $|P| \in |D|(|A| - (|C|))$  is true

이 방식에 따르면 제외구절 *other than C*와 *C 외에*의 기능은  $\langle e, t \rangle$  유형의 보통명사(common noun)의 범주 A에서 C의 값을 삭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사, 의미간의 합성성을 최대한으로 유지시키는 방향에서 개별 형태소의 의미로부터 내포논리언어로 번역을 하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7) a. |외에|, |other than| (초안: 수정될 것임)  
 $\Rightarrow \lambda y \lambda P \lambda x [P(x) \ \& \ x \neq y]$   
 b. |철수 외에|, |other than Chris|  
 $\Rightarrow \lambda P \lambda x [P(x) \ \& \ x \neq c]$   
 c. |철수 외에 학생 |, |other than Chris, student|  
 $\Rightarrow \lambda x [student(x) \ \& \ x \neq c]$

이 번역을 기초로 하여 아래 (1), (33a)에 대한 전체 문장의 의미는 (38)과 같이 표시되며, 이런 방식이 제외적 의미와('except'의 의미) 부가적 의미에('besides'의 의미) 동일하게 통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 (1) 철수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  
 (33a) Other than Chris, every student attended the meeting.  
 (38)  $\forall x [[student(x) \ \& \ x \neq c] \Rightarrow attended-the-meeting(x)]$

위의 (38)의 진리조건들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철수가 아닌 학생은 모두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며, (가) '철수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과 (나) '철수가 학생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38)을 (1)과 (33a)의 적절한 진리조건으로 파악할 때, 제외적 의미해석을 보이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부정조건, 포함조건, 양화사 제한을 설명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부정조건을 생각해 보자. 철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추론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것은 대화함축에 흔히 나타나는 無爲양화의 금지(prohibition of vacuous quantification)와 유사한 제한에 의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sup>3</sup> 철수라는 개체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와 진리값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석이 된다. 철수를 제외한 경우에 모든 학생이 참석한 것이므로, 철수를 제외한 것이 무의미한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수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부정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위의 '용팔이'

3. 위의 논리식 (38)에서  $x \neq c$ 라는 조건이 (철수도 참석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화용적 제한으로부터 이러한 추론이 발생한다고 보면 무위양화의 금지와 유사하다. 이는 Michael Geis가 언급한 'invited inference'와 비교된다. 즉, 아래 (i)에서 (ii)를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명시적 제한이 소용없게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화용적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 (i) 구두를 닦아주면 용돈을 주겠다.  
 (ii) 구두를 닦아주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예문에서 보았듯이 이 부정조건은 절대적인 함의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증명한 바 있다.

둘째로, 포함조건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가? 이것도 위의 부정조건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설명이 된다. 다시 말해, 철수가 학생이 아니라면 제외시키는 것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조치가 되고 만다. 철수가 학생이 아닌 경우, 철수를 제외하지 않더라도 전칭 양화사를 사용하여 일반성을 유지되어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가 참인 문장이다. 따라서, 철수와 관련하여 제외구절이 등장한 이상, 철수가 학생인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고 따라서 포함조건이 도출되는 것이다.

셋째로, 양화사 제한은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제시될 설명은 위의 두 경우에 비해 명확성과 설득력이 약간 결여되어 보인다. 일단,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제외구문의 주요한 목적이 일반성을 유지하여 상황을 서술하자는 것이라고 가정하자. 일반성을 최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all, every, no*와 같은 (긍정 및 부정) 전칭 양화사의 역할이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이 이러한 전칭 양화사를 직접 사용할 수 없을 경우라도 일부 개체를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양화사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제외구문이다. 따라서, 영어의 두 가지 제외구문과 한국어 제외구문에서 공히 전칭 양화사는 허용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영어 연결제외구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영어 자유제외구문과 한국어 제외구문에서는 *almost all, almost every, few*와 이에 상응하는 *거의 모두, 거의 전부, 거의 아무도*와 같은 준전칭 양화사가 허용이 되는 위계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일반성이 제외구문에 의해 전칭 양화사의 경우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Half the students except John*이나 *철수 외에 절반의 학생*의 경우는 제외구절에 의해서도 충분한 일반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 양화사 제한이 발생되었다고 추정된다.<sup>45</sup>

다음으로, 전칭 혹은 준전칭 양화사가 아닌 경우, 즉 *외에와 other than* 등이 부가적으로(‘besides’의 의미로) 의미해석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위에 제시된 *외에*의 의미정의에 따라 (20)의 진리조건은 (39)로 표시될 수 있다.<sup>6</sup>

(20) 철수 외에 여학생 열 명이 참석했다.

(39)  $\iota x[[\text{female-student}(x) \ \& \ \text{i-card}(x)=10 \ \& \ x \neq c] \ \& \ \text{attended-the-meeting}(x)]$

4. 이 구절들이 (23), (24)에서 부가적 의미로의 사용도 불가능한 이유는 (28), (29)와 달리 아주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것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라는 점이 아닐까 추측한다.

5. 고려해야 할 사항은 *all, every, no, most, few*와 이들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들이다. 이들이 나머지 양화사와 어떤 면에서 구분이 되는가? 이들이 자연집합(a natural class)을 형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연히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들은 집합의 비율에 관한 서술을 하는 양화사 중에서 전칭 혹은 준전칭 양화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Barwise and Cooper(1981:180)에 따르면, 이들로 이루어진 명사구는 주어진 원소들의 *冪乘집합(power set)*인  $\text{Pow}(E)$ 를 지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논의한 주제와 여기서 추측한 이상의 어떤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6. 논어의 편이상 *join-semilattice*의 개념을 이용한다. 이에 따라 논리식 (39)의 변항  $x$ 는 *group*으로서 개체이며, *i-card*는 Link(1986)의 *group*으로서의 개체에 대한 개별적인 *atomic i-part(individual part)*의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i-card}(x) := \text{card}(\{\text{atomic-i-part-of}(x)\})$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진리조건 (39)가 명시하는 것은 단지 ‘철수가 아닌 여학생 열 명이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장 (20)에서 앞에서 다룬 제외적 의미해석의 경우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부정조건에 반대되는 (가) 긍정조건: ‘철수는 모임에 참석했다’; 포함조건에 대조되는 (나) 포함조건의 완화: ‘철수는 여학생일 필요가 없다’가 그것이다. 필자의 제안이 설득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진리조건 (39)를 기초로 하여 어떤 방식을 통하여 문장 (20)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추론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요구된다.

먼저, 긍정조건의 경우를 살펴보자. 피제외 명사구 여학생 열 명의 양화사 열 명은 집합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수사(numeral)이다. 그러므로 전칭 및 준전칭 양화사가 등장하는 제외구문과는 기능과 목적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모든과 같은 전칭 양화사가 나오는 경우는 제외구절을 통하여 일반성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수사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주어진 개체를 제외하더라도 비율에 관한 양화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구절은 일반성을 획득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열 명의 의미가 ‘적어도 열 명’이라고 한다면, 개체 집합에서 철수를 삭제한 것이 진리조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제외된 것이 진리조건과 상관이 없다면, 제외의 목적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문장 (20)은 그 이전에 철수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 문장에서 철수는 주제(topic)로 등장하고 있으며, 철수의 행위에 덧붙여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개체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외구절에 해당하는 개체의 삭제는 양자택일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부정조건보다는 긍정조건이 전체문장에 대한 기여도가 단연 더 높다. 긍정조건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무위 양화(vacuous quantification)는 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필연성은 없으나 부정조건 보다는 긍정조건으로 해석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화용론적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26)과 (27)의 차이는 이점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예로서 설명될 수 있다. 아래의 문장들은 피제외구절의 양화사에서만 차이가 있다. 첫 문장은 전칭양화사, 둘째 문장은 수사가 사용되었으며, 제외구절 한 명은 불특정인을 지정한다. 위에서 고찰한 대로 피제외구절에 전칭양화사가 쓰인 문장은 제외적 의미해석을 도출한다. 비록 불특정인이지만 제외구절을 뺀 나머지 문장의 진리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둘째 문장에서는 우선 나머지 문장에 대한 진리조건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외적 의미도 아니고, 제외구절이 불특정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문장의 주제(topic)로서 기능하지도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가적 의미로도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화용적으로 비정상적인 문장이 되어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26) 한 명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

(27) #한 명 외에 열 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피제외구절 내의 전칭 양화사의 존재가 부정조건과 포함조건과 거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율과 관련된 것이 아닌 약한 양화사(weak quantifier)의 존재와 긍정조건과의 관계적 긴밀성도 고찰해 보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포함조건의 완화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양화사가 비율

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집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무의미해서 결국에는 단순한 추가적인 서술기능이 주된 목적이 되고, 따라서 제외시키는 집합도 굳이 전칭양화사의 경우처럼 동류집합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4.4 통사적 적절성

본고의 자유제외구문에 대한 통합적 설명은 나름대로 의미, 화용론적 타당성을 획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문제는 통사적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수정이 요구된다. 먼저, 외예의 논항으로 등장하는 명사구가 철수와 같은 개체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아래 (40)과 같이 일반 양화사(*generalized quantifier*)일 수도 있음에 주목하여 상위유형으로 일반화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41)을 제안한다. 여기서 변수  $\Phi$ 는 일반양화사 유형인  $\langle\langle e, t \rangle, t \rangle$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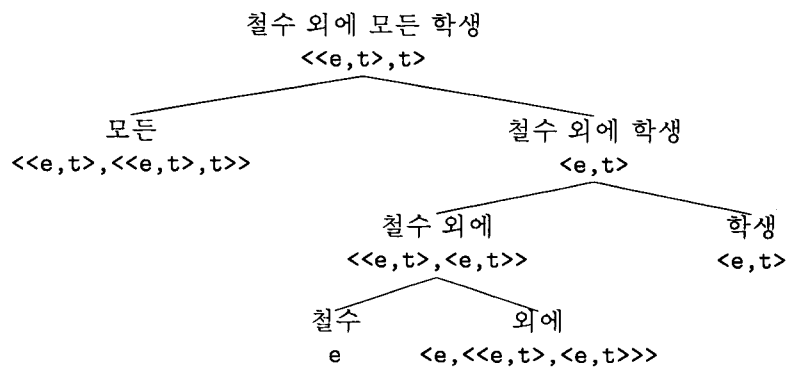
(40) 그 친구들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

(41) |외예|, |other than| (1차 수정안)  
 $\Rightarrow \lambda\Phi\lambda P\lambda x[P(x) \ \& \ x \notin \bigcap \Phi]$

둘째로, (아래 재나열한) 위의 (37b)에서 (37c)로의 결합방식이 통사적 관점에서는 언어 직관에 다소 위배되는 형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수형도에서 나타내 본다면 아래 (42)나 (43)과 같다. 여기에 제시된 현재의 결합방식을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두가 철수 외에 학생을 보충어로 취하여, 학생의 직전에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 보어의 중간에 삽입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every*가 *other than Chris, student*를 보어로 취하면서 *every*가 *student* 앞에 삽입된다.

- (37) b. |철수 외에|, |other than Chris|  
 $\Rightarrow \lambda P\lambda x[P(x) \ \& \ x \neq c]$
- c. |철수 외에 학생|, |other than Chris, student|  
 $\Rightarrow \lambda x[student(x) \ \& \ x \neq c]$

(42) 철수 외에 모든 학생



(43) other than Chris, every student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학생의 전부라는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지, 지구 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제한 받는 정보는 비결속 변수가 진리조건의 일부로서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적 정보의 일부를 언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위의 변수 R의 도입에 다름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ooper의 방식이 언어 의미론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46) 학생이 모두 왔구나.

이 방법을 자유제외구문  $[_{NP} [_{CN}$  철수 외에]  $[_{NP}$  모든 학생]]에 적용하면 아래 (4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7a)는 결합관계를 명확히 보이는 장점이 있어 위의 관계절 구문의 의미표기 방식을 따른 것이며, (47b)는 우리의 표기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철수 외에의 범주를 CN으로 재설정하고, 따라서 외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48)처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수정안에서는  $\langle\langle e, t \rangle, t \rangle, \langle 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유형이었던 것이 이제  $\langle\langle e, t \rangle, t \rangle, \langle e, t \rangle \rangle$ 의 유형이 된 것이다.

- (47) a.  $\lambda R[[\text{모든}(|\text{학생}| \cap R)](|\text{철수 외에}|)]$   
 $\Leftrightarrow |\text{모든}(|\text{학생}| \cap |\text{철수 외에}|)]$   
 b.  $\lambda R \lambda P \forall x[[\text{student}(x) \cap R(x)] \rightarrow P(x)](\lambda x[x \notin \{c\}])$   
 $\Leftrightarrow \lambda P \forall x[[\text{student}(x) \cap x \notin \{c\}] \rightarrow P(x)]$

(48) |외에|, |other than| (2차 수정안)  
 $\Rightarrow \lambda \Phi \lambda x[x \notin \Phi]$

그러나 (48)에 제시된 2차 수정안도 의미관계를 비교적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외에의 의미로서 불완전하다. 초안의  $x \neq c$  대신  $\cap \Phi$ 를 이용하여 일부 일반양화사 유형과 고유명사를 통합하여 설명하려 하였지만, 제외구절에 불특정 명사구(indefinite NP)가 나오는 경우에  $\cap \Phi$ 는 공집합이 된다. 그러나 다음의 두 문장에서 한 명과 남자 두 명은 불특정 해석이 가능하다.

- (26) 한 명 외에 모든 학생이 참석했다.  
 (49) 남자 두 명 외에 여자 세 명이 참석했다.

따라서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최종안으로서 (50)을 제안한다.

(50) |외에|, |other than| (최종안)  
 $\Rightarrow \lambda \Phi \lambda x \forall Q[x \in Q \rightarrow Q \notin \Phi]$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는 변항 x를 포함하는 어떤 집합도 제외되는 구절의 원소가 되지 못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의미적으로는 위의 2차 수정안과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위 (49)의 진리조건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51)  $\exists X[\text{card}(X) = 3 \ \& \ \forall x[x \in X \rightarrow \text{female}(x) \ \& \ \text{attended}(x)] \ \& \ \forall Y[x \in Y \rightarrow Y \notin \{\text{남자 두명}\}]]$   
 (52) |남자 두명| :=  $\lambda P \exists Y[\text{card}(Y) = 2 \ \& \ \forall x[x \in Y \rightarrow \text{male}(x) \ \& \ P(x)]]$

## 5. 문법화의 양상

이상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어느 자연 언어 L에 영어나 한국어와 유사한 제외구문이 있고, 양화사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위에 관찰된 전칭 양화사, 준전칭 양화사, 기타 양화사의 순으로 된 위계성을 지킨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즉, 이 언어 L에서 *half the students except John*에 해당하는 표현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most of the students except John*과 *all the students except John*에 해당하는 표현도 허용되겠지만, 역으로 *all the students except John*에 해당하는 표현이 허용되는 경우에 *most of the students except John*과 *half the students except John*에 해당하는 표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성을 특정 구문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언어 체계 전반에 관한 것으로 확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except*나 *but*으로 인도되는 연결제외구문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어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국어에는 연결제외구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문장 (53)을 보자. 이 예문들로부터 **밖**에 안의 구문은 연결제외구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3) a. 철수 밖에 안 왔다.  
       → # 철수는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보자.  
       b. \*철수 밖에 모두 왔다.  
       c. \*철수 밖에 아무도 안 왔다.

이 구문은 문법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두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부정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53a)에서 철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전제의 일종이라고 파악할 수가 없음을 둘째 행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없음을 통해 알 수 있다.<sup>7</sup> 둘째로, (53b,c)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비분리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밖에**와 **안** 사이에 다른 요소가 나올 수 없으며, 부정어 **안** 없이 긍정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는 핵심적인 면에서 영어의 연결제외구문과 같은 속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와 한국어를 전체적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해당 어휘에 따라 문법화의 과정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어휘의 문법화 과정 진행 정도의 위계성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 (54) 문법화의 진행 정도:

연결제외구문 except, but, 밖에 안	≫	혼합적 자유제외구문 except for	≫	일반 자유제외구문 other than, 외에, be-halve
-----------------------------	---	--------------------------	---	---------------------------------------

이상과 같이 제외구문의 분류를 살펴보면, 통사적인 이동의 허용 가능성에서 뿐만 아니라, 의미 화용적인 속성인 양화사 제한과 함의 및 대화함축의 정도

7. 사실, '부정조건'이라는 용어를 이곳에 적용하는 것은 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외구문의 철수는 '온 것'으로서 내용면에서 긍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기술적인 정의에 따른 것으로서 나머지 문장의 의미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야기되는 혼란은 이 구문이 항상 부정문이라는 데에서 발생할 뿐이다.

에 있어서 위계성(hierarchy)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연결제외구문, 혼합적 성격의 자유제외구문, 일반 제외구문의 순서로 제외구문에 허용되는 양화사의 제한이 많으며, 화용적인 속성보다는 의미적인 속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이 분류가 통사적으로도 제한성이 많은 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화용적 정보의 내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상이하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즉, 문법화의 단계가 각각 달라서, 연결제외구문은 완결단계로 굳어진 표현, 혼합적 성격의 자유제외구문은 중간단계, 그리고 일반 제외구문은 초기단계로서 화용적 설명이 규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겠다.

## 6.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자유제외구문에 대한 고찰과 영어의 자유제외구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이 구문과 관련한 새로운 안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이 구문은 일반적으로 언어적 맥락에 따라 제외적 의미와 부가적 의미를 가지는 중의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의성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바, 피제외구절에 비율을 표시하는 강한 양화사(strong quantifier)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적 의미를 가지며, 수사(numeral)와 같은 비율의 개념이 없는 약한 양화사(weak quantifier)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경험적 일반화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제외구문의 세 가지 조건인 부정조건, 포함조건, 양화사 제한 등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기존의 von Stechow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통사, 의미적으로 합성성(compositionality)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이 구문의 중의성을 단일한 진리조건의 설정을 통한 통합적 설명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비교적 간단한 의미, 화용론적 기재를 통해 한국어 외예와 화란어 *behalve* 등이 영어의 'except'와 'besides'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Bach, Emmon and Robin Cooper. 1978. The NP-S Analysis of Relative Clauses and Compositional Semantic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 145-150
- Barwise, Jon and Robin Cooper. 1981. Generalized Quantifiers and Natural Language. *Linguistics and Philosophy* 4: 159-219.
- Cooper, Robin. 1975. *Montague's Semantic Theory and Transformational Syntax*.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Von Stechow, Kai. 1993. Exceptive Constructions.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123-148.
- Heim, Irene.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Hoeksema, Jack. 1987. The Logic of Exception, in A. Miller (ed.), *Proceedings of ESCOL 4*,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 Hoeksema, Jack. 1990. Exploring Exception Phrase, in Martin Stokhof and Leen Torenvliet (eds.), *Proceedings of the Seventh Amsterdam Colloquium*, IITLI, University of Amsterdam, pp. 165-190.
- Hoeksema, Jack. 1995. The Semantics of Exception Phrases, in Jaap van der Does and Jan van Eijck, (eds.) *Quantifiers, Logic, and Language*. Stanford University, pp. 145-177.
- Kadmon, Nirit and Fred Landman. 1993. Any. *Linguistics and Philosophy* 16.
- Keenan, Edward and Y. Stavi. 1986. A Semantic Characterization of Natural Language Determin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253-326.
- Link, Godehard. 1986. Generalized quantifiers and plurals. manuscript, University of Munich and CSLI, Stanford.
- Milsark, Gary. 1977. Toward an explanation of certain peculiarities of the existential construction in English. *Linguistic Analysis* 3: 1-29.
- Moltmann, Friedericke. 1995. Exception Sentences and Polyadic Quantific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8: 223-280.
- Reinhart, Tanya. 1991. Elliptical Conjunction- Non-quantification QR, in A. Kasher (ed.), *The Chomskian Turn*, Basil Blackwell, Cambridge, Massachusetts.
- Swan, Michael. 1995. *Practical English Usage*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접수일자: April 20, 2002  
게재결정: June 17, 2002